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코멘터리 현장기

지난 9월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16일 여정의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아시안게임은 - 온 국민 청소년열풍을 몰고 왔던 - 평창 동계올림픽과 - 세계 1위를 무너뜨린 기적의 - 러시아 월드컵으로 달아올랐던 스포츠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는 장이 되었다. 특히 가장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았던 한국과 일본의 축구 금메달 결정전의 경우 3사의 가구 시청률 합이 57.3%에 육박하였다. 어떻게 수많은 시청자들이 머나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경기를 TV 앞에서 시청하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고 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현장에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었던 코멘터리에 있다. 필자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제대회 코멘터리 기술스텝을 처음으로 경험하였고, 그렇기에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기본적인 국제대회 및 코멘터리에 대한 이해와 현장기를 '방송과기술' 독자들과 공유해 보고자 한다.

국제대회 생초보가 알아본 기초지식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들은 각각의 스포츠 이벤트를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¹⁾라는 조직에서 매 경기의 개최국을 선정하고 국가 간의 협의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개최국이 선정되고 나면 해당 국가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교통망 등 인프라 준비와 더불어 해당 대회의 주관방송사(HB²⁾)를 선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아시안게임-IGBS, 올림픽-OBS, 월드컵-HBS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IGBS³⁾가 주관방송사를 맡게 되었다.

주관방송사는 각 경기장 Venue에서 종목별 특성에 맞게 국제신호(S⁴⁾)를 제작하고 이를 국제방송센터(IBC⁵⁾)의 회선분배센터(CDT⁶⁾)로 받아서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RHB⁷⁾)에 전달한다. 방송사들은 모두 동일한 국제신호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받게 되며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코멘터리, 인서트(Venue/Beauty Shot, Drone), COMCAM(코멘터리석 카메라), UNICAM(방송사별로 별도로 운용하는 카메라), 스튜디오 등을 LSM/CG와 함께 다채롭게 구성하여 각자의 특별함을 가미한 중계 프로그램으로 완성한다.

1) Olympic Council of Asia. 올림픽의 경우 IOC, 월드컵의 경우 FIFA

2) Host Broadcaster. It has the responsibility for full TV coverage of all sports, IBC design and operations and IBC-based production, broadcast venue operations, services to RHBs, relations with RHBs (Booking & Information), Logistics, Legal, Finance, HR, IT and Second Screen Application.

3) International Games Broadcast Services. HBS와 IMG의 50-50 Joint Venture

4) International Signal

5) International Broadcast Center

6) Contribution Distribution Transmission

7) Right Holding Broadcaster



그림 1. 국제방송센터 내 회선분배센터

코멘터리 무엇부터 시작할까

코멘터리 중계의 절차적 시작점은 청약Booking이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의 RateCard와 청약서BOF⁸⁾이다.

Regular Commentary Position	
This is a fully equipped facility, including: - One desk with 3 seats - One TV set, showing the Basic Feed from the local venue - When CIS / RTDS is available, a second TV set, showing CIS / RTDS - One Commentary Unit with two microphones/headsets - Power A Regular Commentary position will be provided with a commentary circuit to IBC and a return circuit. A Coordination 4-wire circuit will be provided on request. IGBS can provide a turnaround on an international circuit from the IBC to the RHB's home country.	
21110	Regular Commentary Position, per venue
<i>This position can also be booked on a per-match basis for the football tournament</i>	
21112	Regular Commentary Position, per match
Non-Equipped Commentary Position	
This is a non-equipped facility, including: - One desk with 3 seats - Power	

그림 2. RateCard의 코멘터리 서비스 파트

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IGBS Booking Order Form : Football Women Group Stage																			
Company Name				Authorised Person Name				Date											
Match N°	Venue Code	Stadium	Kick-Off Local Time (UTC + 7)	Team A	Team B	Commentary Positions		ENG Camera Positions		Flash Interview	Announce Positions		Mixed Zone	Injection Point		Compound			
						21112 Regular	21122 Non-equipped	22320 Central	22320 Field Left	22320 Field Right	22230 Post-match Flash Interview	22210 Fully Equipped, 10-mn Slot		22132 Mixed Zone Interview Position Per Match	23220 10-mn Slot		23112 Compound Space Per Day		
02	PGS	Gelora Sriwijaya	Thu 16 Aug 15:00	KOR	TPE						3	2	1	1	2				

그림 3. IGBS의 여자 축구 청약서

8) Booking Order Form, 제작 스텝이 편성/프로그램 구성에 맞춰 작성하지만 코멘터리 담당자가 BOF와 RateCard문서를 통해 청약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코멘터리 중계석CP⁹⁾은 코멘터리유닛CU¹⁰⁾, 2개 헤드셋, 4Wire 인터컴, PGM 모니터, 인포CIS¹¹⁾, 3개의 좌석과 테크니컬 전원이 갖춰진 'Regular 코멘터리 중계석'과 3개의 좌석과 테크니컬 전원만 갖춰진 'Non-equipment 코멘터리 중계석'으로 구분 지어 청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on-Equipment 코멘터리 중계석은 해설진 외 현장 스탭들이 앉을 자리와 장비를 두기 위해 청약한다. 만약 축구 종목과 같이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경기장이 바뀌어 미리 청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경기 Match 별로 코멘터리 중계석을 청약하지만, 한 경기장에서만 해당 종목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기장 Venue를 지정 Dedicate 하여 코멘터리 중계석을 청약한다. 경기장 지정 청약의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청약이 추가로 가능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이 부분을 IGBS가 아닌 현지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여 개통시킬 수 있었다. 덧붙여, 청약서의 Announce Position(Pre/Post Stand)은 해설진의 동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코멘터리 담당자가 청약 여부와 시간/장소 등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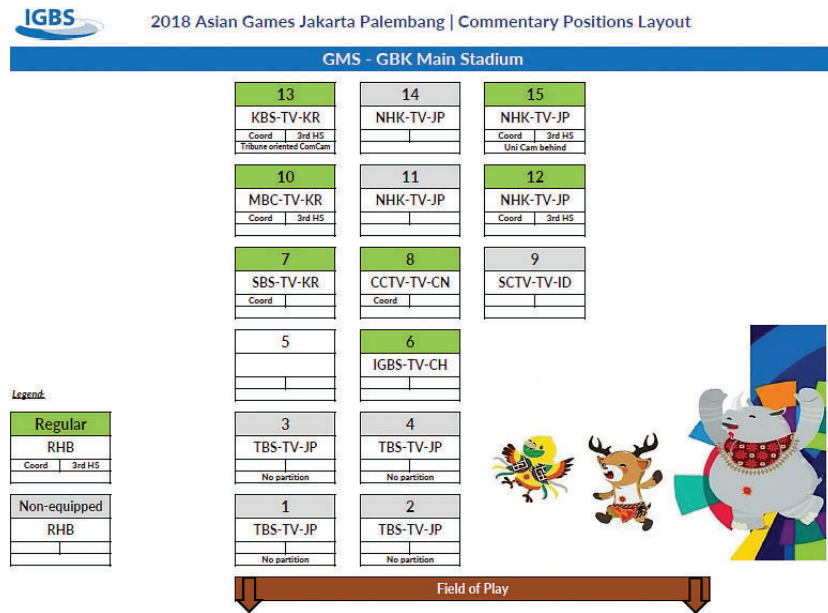


그림 4. 개/폐막식이 열렸던 주경기장 코멘터리 중계석 배치

이렇게 청약이 확정되면 코멘터리 기술스텝은 사전답사를 진행한다. 조직위에서는 주요 경기장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국제방송센터 내 인포데스크나 주관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 운행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경기장에 도착하면 배정된 코멘터리 중계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배정된 코멘터리 유닛(PGM/토크백 회선, 설정값 등), 헤드셋, 인터컴, PGM모니터, 유선인터넷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보통 경기 당일이 되면 미디어 출입구가 안내되지만, 선 답사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멘터리 중계석의 위치는 경기장의 가장 Main이 되는 1번 혹은 VIP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서 찾으면 가깝다. 가능하다면 현장의 경기장 담당자BVM¹²⁾와 경기장 기술담당자VTM¹³⁾, 코멘터리 제어실CCR¹⁴⁾엔지니어를 미리 만나서 특이사항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들은 대부분 국제신호제작 중계차/발전차/SNG 등이 모여 있는 Broadcast Compound 근처에 있고 주관방송사에서 해당 경기장별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9) Commentary Position

10) Commentary Unit,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LAWO社와 Prodys社의 CU가 사용 됨

11) Commentary Information System, 해설자를 위해 경기 진행사항/선수정보 등을 제공

12) Broadcast Venue Manager, 주관방송사의 직원으로 경기장 내 모든 방송관련 행정/시설 담당

13) Venue Technical Manager, 주관방송사의 직원으로 경기장 내 기술부문 담당

14) Commentary Control Room, 각 경기장에서 모든 코멘터리 중계석의 회선과 셋팅을 관리하는 곳



그림 5. 셋팅이 완료된 코멘터리 중계석

경기 당일이 되면 생방송 진입 3~4시간 전에 도착해서 미리 회선/장비를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온-에어 리턴/COMCAM/모바일 중계장비/조명/유무선 공유기 등을 설치한다. 캐스터/해설위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필요로 하는 비디오와 오디오 소스가 다르다. 예를 들어 IBC 부조정실의 상황을 잘 들으면서 현장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는 캐스터에게는 PD콜과 온-에어 리턴이 중요한 정보이며, 해설위원들은 용이하게 리플레이를 확인·분석할 수 있도록 PGM 모니터가 잘 보이는 자리가 선호된다. 또한 회선이나 전원선이 발로 차 이거나 하지 않도록 선 정리를 잘해놓으면 안전하다. 코멘터리 중계석 세팅과 부조정실과의 확인이 끝나면 국제신호의 시작을 기다린다. 국제신호는 경기별 Run Up/Down 스케줄에 따라 제작되는데 이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현장의 흐름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약 1시간 전부터 Pre-Standing을 진행하고 10분 전부터 국제신호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었다. 경기가 시작되면 별도로 구성해 놓은 모니터 헤드셋을 통해서 해설진 간의 음량 레벨 밸런스와 인터컴을 들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특히 헤드셋의 마이킹이 중요한데 해설 중 큰 움직임이 있거나 헤드셋을 벗었다 다시 착용하는 경우에 마이킹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그림 6. 코멘터리 중계 모습



그림 7. 마이킹 조정

특이사항과 느낀 점

국제대회는 종합경기/단일종목인지,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는지, 주관방송사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제대회에서는 AEQ 혹은 LAWO의 코멘터리 유닛이 사용되어왔으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Prodys 社の Quantum W 코멘터리 유닛이 도입되었다. Quantum W는 오디오 믹서와 전송 코덱이 일치되어있는 장비로서 별도의 제어/프로세싱/IO 등을 중앙에 두는 AEQ/LAWO의 코멘터리 시스템과 같이 각 경기장의 코멘터리 제어실CCR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스템 구성이 간단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고 각각의 코멘터리 유닛이 국제방송센터의 코멘터리 스위칭 센터CSC까지 오직 통신사의 선로에 의지하게 된다는 점과 그로 인한 (원격)제어의 불안정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별도로 주관방송사를 통한 COMCAM이 청약 사항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전의 국제대회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다. SBS를 비롯한 KBS, MBC에서는 각자 카메라와 조명, TVU/LIVE U와 같은 모바일 중계 장비를 통해서 COMCAM을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문제는 현지 통신망의 안정도였다. 메달 결정전으로 가까워질수록 미디어의 관심도 높아지고 관중이 늘어나면서 경기장 내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서 결국 모바일 중계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Wi-Fi 등을 연결해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의 코어망 자체에서 이미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코멘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야구경기 국제신호에 투수의 구속이 표기되지 않는 점도 여타의 국제대회와 다른 점이었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을 보면 배터리의 전략을 파악하거나 투수의 컨디션을 이해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기에 연출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속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기술팀에서는 현장에서 원격으로 구속 데이터를 IBC로 보내서 자동으로 적절한 포맷의 구속 표시 CG가 발생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리에 적용하였다. 주관방송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통해 최선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기여했기에 의미가 남달랐던 시도로 기억한다.

필자가 방송엔지니어를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파수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실어 시청자들에게 희로애락을 전달한다는 점이었다.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주파수의 가치는 Bit Per Second로 단순히 계산되는 채널용량 그 이상으로, 얼마나 전달받는 이들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슬픔 등을 생생하게 감응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중계는 매 경기가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처 국제신호에 담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으나 아쉽게 패한 선수의 울부짖음과 눈물, 극한의 체력을 끌어내어 뛰다가 근육경련으로 쓰러져있는 선수 등은 국제신호에 미처 담기지 못한다. 코멘터리 현장 중계는 이런 국제신호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달함에 그 의의가 있었고 재미있게 봤다는 지인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 방송엔지니어로서의 보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IBC와 목동에서 회선과 제작을 위해 고생하신 감독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코멘터리 현장기를 마치고자 한다. 📺